

차와 인터넷의 만남

인터넷이 생활 필수도로 자리 잡은 요즘, 차인들도 인터넷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차 향기를 전파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독자 관련한 카페만도 200여 개. 차인들의 친목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설된 인터넷 동호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들이 말하는 인터넷 동호회의 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차인들이여, 인터넷으로 모여라!



지난 12월 12일 저녁 7시,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 차인 20여 명이 모였다. 대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직장인까지. 공통점이란 전혀 없어 보이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인터넷 차 동호회 '옛 선인들의 전통차(cafedaum.net/teakorea)'의 송년모임 때문이다. 서로의 이름보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아이디(ID)가 더 친숙한 이들의 공통 화제는 바로 '차'. 이날 모임에서는 1년6개월 동안 진행된 교육을 마친 기념으로 '다례지도사 자격증' 수여식이 함께 열려 이야기꽃을 피웠다.

1994년 '서울시 우리농산물 애용 동호회'에서 시작된 이 모임은 강우석(45)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으로 시작했다. 지인들의 모임이었던 '옛 선인들의 전통차'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자 홈페이지를 개설해 차 문화 보급에 나섰다. 지난 2000년 3월 개설된 카페에는 현재 약 2천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부산과 서울, 충청권에서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의 정기모임 외에도 수시로 산행과 차문화 탐방을 개최하고 있다.

강 회장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우리 전통차를 널리 알리고자 카페를 개설했다. 3년 동안 회원도 많이 늘었고, 우리 차문화에 관한 자료들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며 "우리 선조들의 차문화를 오늘날에 계승한다는 인식을 널리 퍼기 위해 더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옛 선인들의 전통차' 외에도 차문화 보급을 위해 개설된 동호회 중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 카페 '차맛어때(cafedaum.net/tea3)'와



녹차 관련 카페만 200여개 모임때 아이디어가 더 친숙 친목, 정보공유 등 활동 다양 회원간 단합이 최대 장점

'녹차향기(cafedaum.net/teaaroma)'. 이들은 회원 4천여 명이 넘는 '매머드급' 동호회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차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부산·경상·광주·전라' '대전·충청' 등 지역 소모임을 꾸려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중국차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茶(cafedaum.net/daumtea)'와 전통차와 향 동호회 '향기를 찾은 사람들(cafedaum.net/incense)'도 각각 2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인터넷 동호회의 장점은 정보공유와 회원들 간의 단합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회원들 간에 나이와

지역, 지역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대화와 의견 개진이 가능해 친목 도모에 더없이 유용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서와 차 관련 자료, 사진을 비롯해 음악과 다시 만드는 법 까지 소소한 정보들을 게시판에 올려 공개하기도 하고, 궁금한 점이 나 필요한 자료를 메일이나 정기 채팅을 통해 요청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정기 모임을 통해 다양한 차를 마시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차와 다기를 공동구매할 수 있다는 것도 인터넷 차모임의 장점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지난 12월 13일 열린 일지암 초의 차문화연구원의 현판식 모습.

초의 차문화연구원 개원

초의선사의 사상과 차맥을 이어가고 있는 일지암 초의차문화연구원(이사장 여연은)은 광주 예술의 거리에 연구원을 마련하고, 12월 13일 현판식 및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풍산 스님(대흥사 주지)과 행법 스님(선덕사 주지)을 비롯해 운동환 강진군수와 지홍원·이동락 변호사, 서예가 이돈홍 씨, 도예가 김소선 씨, 이영애 광주 예지원장 등 100여명의 차인이 동참했다.

일지암 주지 여연 스님은 인사말에서 "광주 주를 예향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변변한 차문화 교실이 없었다"며 "누구나 편안하게 차를 마시고 배우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초의차문화연구원은 6년전 설립됐으며 산하에 서울, 광주, 순천 등 각지에 12개의 다회가 운영되고 있다.(061)533-4964

광주-이준엽 기자

명원 다도문화원 전남 목포지부 열어

명원문화재단의 명원다도문화원이 지난 12월 8일 전남 목포지부를 개원했다. 목포시 하당 노인 복지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명원문화재단 김경희 이사장과 허원봉 목포지부장, 목포대 정순택 교수 등 100여명의 차인들이 참석해 개원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 이사장은 축사에서 "30여 년간 목포 차인회를 이끌어 온 허원봉 지부장이, 다도를 통해 날로 피폐해지고 각박해지는 우리사회를 보다 밝고 맑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평소 존경하는 스님과 부모님께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기원하세요 ~ **홈쇼핑 절찬 판매중!!**

강력 마하몰이 佛子님께 추천하는 효도선물 **한솔 銀 세라믹 매트**



한솔 은(銀) 세라믹매트(더블+싱글)
가액 ₩298,000원 (날개 구입 가능)

[상세설명]

- 한솔 은(銀) 세라믹매트 - 純銀 99.9%
- 음전위 온열 조향자극기
- 제조허가 번호 : 식약청허가 제 1194호
- 품목허가 번호 : 식약청허가 01-705호
- 규격 : 은세라믹매트(더블) 200cm × 140cm
은세라믹매트(싱글) 195cm × 100cm

음전위: **온열 난방**

■ 은(銀)의 효능

- 바이오 기술의 정점으로 은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은이 가지는 뛰어난 **살균 중 전성**, **연성** 그리고 **항균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 강력한 은의 항균력 : 은과 접촉하여 6분이상 살 수 있는 세균은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의 실험결과 지상의 거의모든 단세포 균을 살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서양에서는 은제컵을 사용하여 병의 감염을 막아 왔으며, 은전을 정액에 넣어 우유의 변질을 막고 은상자속에 음식을 보관하여 신선도를 유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균, 소독용 젤리를 은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 동, 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은을 자연항생제로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분사 은은 귀금속으로서 그 값이 비싸서 일반 대중은 사용할 수가 없었고 왕궁에서는 은이 인체에 미치는 특이한 점을 이용하여 모든 식기 및 장신구를 은으로 만들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중세기때 유럽지역에 '페스트'가 창궐해도 왕궁에는 단 한사람의 희생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100% A/S보장

■ 제품특징

- 순은 99.9% 사용으로 강력한 항균력
- 생활방수 기능으로 액체에 젖지 않습니다.
- 한솔 은세라믹매트 내부에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300개의 고급 게르마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물, 커피, 주스 등 액체를 매트에 흘렸을 경우 마른수건으로 닦아 주는 것으로 매트와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솔 銀 세라믹 매트 내부에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300개의 고급 세라믹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0
[일일] 농협 053-12-113210 예금주 : 허동규



인터넷 마하몰 www.mahamall.co.kr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0**
[일일] 농협 053-12-113210 예금주 : 허동규

Interview



이용우

(대구은행 서대구지점장)

운택한 삶 위해 차 드세요

현직 은행 지점장이 540여 페이지에 달하는 차 관련 책을 펴내 화제다. 대구은행 서대구지점 이용우(51) 지점장. 그는 10여 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최근 <차와 다도>(삼보 애드컴)를 출간했다.

"어릴 때부터 집에 다니면서 스님이 주시는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차를 배우려고 하니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배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오랜 시간 허비하지 않고도 차 생활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차 입문서의 필요성은 절감했지만, 상황은 마음만큼 쉽게 따라주지 않았다. 그나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은 드물었다. 신문과 잡지의 기사를 일일이 스크랩하고 차 관련 세미나 자료를 하나둘씩 모으기를 7년. 자료를 읽고 정리하는데도 꼬박 2년이 걸렸다.

"막상 책을 내고 나니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눈 밝은 분들이 잘못 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년간 준비 걸쳐 <차와 다도> 출간 바쁜 시간 차 통해 정신적 안정 찾아

<차와 다도>는 크게 2장으로 나누어진다. 1장 '차'에서는 차의 개념 정의부터 차의 기원, 차나무의 종류, 차의 제조법에 따른 분류, 차의 효능에 관해 다루었다. 2장 '다도'는 우리 차문화의 특징과 차의 선택 및 보관, 다구 고르기, 차 달이는 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차를 처음 시작할 때 '차는 어려운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차도 하나의 기초식품입니다. 지나친 형식보다는 편안하고 맛있는 차를 즐길 수만 있으면 됩니다." 운택한 삶이라는 직업 특성상, 글 쓸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고 질문하자, 그는 일본 손을 내짚었다.

"물론 하루 종일 사람도 많이 만나야 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때 차에 관한 글을 읽거나 차 우리는데 정신을 집중하다보면 오히려 정신적 안정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그는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와도 직접 차를 우려 내 권한. "업무 때문에 만나 어색한 사이일지라도, 차를 매개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현재 매달 12곳의 복지단체를 후원하고 있다. "직장에 매여 있어 몸으로 하는 일 대신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결코 자랑할 일은 아니다"고 말하지만, <차와 다도>가 출간되자 자신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불교사회복지회 일일차집에 책 60여 권을 기증해, 그 판매액을 복지자금에 보태기도 했다.

"마음의 안정과 정신적 위안을 주는 차는 생활을 운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게 하는 것도 바로 차의 위력이 아닐까요?"

대구-여수령 기자

※이번주 '차맥지킴이' 기사 넘겨 씁니다.